

* 연금저축신탁(은행)과 연금저축보험(보험), 연금저축펀드(증권) 등 '연금저축'이란 이름이 붙은 상품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. 가입액 400만원까지 13.2~16.5%를 세액공제받기 때문에 납입만 하면 약 52만8000~66만원을 돌려받는다. 취업하면 가족이나 가족의 지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.

미리 준비해요

연금보험 연금저축



<http://blog.naver.com/hdblog>

최희정팀장과 함께하는
연금보험vs연금저축 내게 맞는 노후대비 PLAN 찾기

개인연금의 종류

분류	상품명	판매사
비과세형 연금보험	공시이율연금보험	보험사
	변액연금보험	
세액공제형 연금저축	연금저축보험	보험사
	연금저축펀드	증권사

* '은행'의 연금상품(신탁)은 사라짐.

1. 두 상품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금

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세금 혜택 비교

	연금저축보험	연금보험
별명	13월의 월급 보험	<u>No세금 보험</u>
<u>세액공제 (연말정산)</u>	<u>1년 간 낸 보험료의 13.2% ~ 16.5%</u>	없음
연금 받을 때 떼는 세금	연금을 받을 때 5.5% ~ 3.3%	없음
보험을 해지할 때	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 발생	세금 없음
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연금 시작 나이	만 55세 이후 (수령시기 선택 가능)	만 45세 이후 (수령시기 선택 가능)

단순하게 말하자면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당장 혜택을 받는 상품이고, 연금보험은 연금을 수령할 때 혜택을 받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.

◇세금 혜택의 차이

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를 받는 시점이다.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고,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를 받는 상품이다.

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에서 납입 금액 기준 연 4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년간 낸 보험료의 13.2%, 5500만원 초과 시 16.5%의 공제율로 연 최대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다만 연금 수령 시 수령액에 대해 3.3%~5.5%의 소득세가 부과된다.

반면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연금저축보험과 같이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소득세 등이 없어 연금수령액에 대한 세금은 따로 없다.

◇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

두 상품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다.

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닌,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
연금보험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